일. 서론 (여호수아 1:1-3):

❖ 모세와 여호수아

- 여호수아서 1 장에는 모세의 이름이 열 한번 나오고 책 전반에 걸쳐서도 그의 이름은 여러 번 나옵니다.
- 두 지도자는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:
 - (1)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(출 3:2-4; 수 5:13-14)
 - (2)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심 (출 3:5; 수 5:15)
 - (3)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심 (출 3:12; 수 1:5)
 - (4) 유월절을 기념함 (출 12:21-23; 수 5:10)
 - (5)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넌 (출 14:21-22; 수 3:14-17)
 - (6)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그침 (출. 16:4-5, 31; 수 5:11-122)
 - (7) 새 땅에 정찰병들을 보냄 (민. 13:1-3; 수 2:1)
- 여호수아 1 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위대한 지도자들이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,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그들이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, 그분의 말씀으로 이 책의 서론이 시작되고,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력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.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였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

❖ 여호수아서의 구성

-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면서 하신 약속, 즉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. 1 장에 나오는 서문과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:

(1) 가나안으로 건너 감	→여호수아 1:1-9	→여호수아 1:1-5:12
(2) 가나안을 점령함	→여호수아 1:10-11	→여호수아 5:13-12:24
(3) 땅을 나누어 가짐	→여호수아 1:12-15	→여호수아 13:1-21:45
(4)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섬김	→여호수아 1:16-18	→여호수아 22:1-24:33

이. 여호수아의 사명 (여호수아 1:4-9):

❖ 언약을 인수받음

- 여호수아 1 장 3 절에서 하나님은 예언적 현재시제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.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한 것처럼 들립니다.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땅을 정복하리라는 확신을 주려 하셨습니다.
-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정복할 새 땅의 사방 경계를 알려주셨습니다 (수 1:4): 동쪽으로는 요단 강까지, 서쪽으로는 지중해, 남쪽은 유프라테스 강,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새 나라의 경계가 될 것이었습니다.
-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강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(수 1:5-6).
- 그러나 정복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노력이 아닌,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부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"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"고 말씀하셨고,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같은 확신을 주십니다 (수 1:5; 마. 28:20).

❖ 능력과 용기

-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이길 능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는 지 물으시기 전에 (수 1:9), 그에게 율법을 지킬 힘과 용기를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(수 1:7).
-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데 최선(힘)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(계 14:12)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.
- 하나님은 "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"(수 1:9)고 약속하시며, 우리의 전투를 도와 주십니다. 우리의 전투는 몸 싸움이 아니라 "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"(엡 6:12)입니다.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(엡 6:13-17).
-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그분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(엡 6:18).

❖ 사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함

-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과 다릅니다.
- 이 세상에서 스쳐가듯 지나가는 성공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사이의 법을 어기고 얻을 수 있지만, 참된 영원한 성공은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(수 1:8).
-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원칙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요?
-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믿음은 율법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율법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(롬 3:31).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알려 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.